

드론 축구·AI챗봇 채팅... 'ICT신세계'로

전남도청서 열린 'ICT 신기술 체험 프로그램' 관람객 매료
KT 등 20여개 기업 참가...사물인터넷·차세대 예방 등 시연

드론 축구, 인공지능 챗봇과의 채팅, 3D 프린팅, 가상현실을 통한 치매 예방·재활 치료, 사물인터넷, 스마트 미디어... 4차 산업혁명의 정보통신 신기술을 한 자리에서 체험하고 즐기는 'ICT 신기술 체험의 날'이 지난 30일 전남도청 운선도홀에서 열렸다. 또 김대중강당에서는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 등 ICT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전략포럼'이 개최됐다.

전남도가 올해 처음 개최한 이 행사는 KT·SK텔레콤·LGU+·휴먼텍 등 20여개 기업이 참가, 신기술을 시연하고 관람객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간단한 교육 후 야외에서 드론을 조종하고, 인공지능(AI) 챗봇과 질문답변을 주고 받았다. 3D프린팅으로 제작한 스파이더로봇으로 로봇축구 경기도 펼쳐졌다. 사물인터넷(IoT)을 적용한 공기질 관

리, 산업시설 안전진단, 인공지능 아파트 서비스 이용, 농어촌 축사·온실·양식장의 온도·습도·수질 관리 모니터링도 체험했다.

치매환자나 장애인들의 인지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가상현실(VR) 인지재활 게임,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현장 작업자가 스마트글라스를 통해 바라보는 영상을 전문가에게 전송해 의사소통하는 증강현실(AR) 원격 근무지원 서비스 등도 선보였다.

체험행사와 함께 마련된 '4차 산업혁명 전략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남 주력산업의 나아갈 방향 설정과 미래 신성장 산업 대응전략 등을 모색했다.

'행복+', 연결로 여는 희망과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최태성 별별한국사연구소장의 '전남, 시대정신의 깃발



지난 30일 전남도청 운선도홀에서 열린 'ICT 신기술 체험의 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이 인공지능 챗봇과 채팅을 하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

을 들다'라는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의 '빅데이터로 보는 미래', 김인숙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원의 '플랫폼 경제와 애자일 조직혁명' 등의 강연이 이어졌다. 또 김혜연 엔싱 대표는 '미래농업의 대안 스마트 팜'의 성공 사례를 소개했다.

김신남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남의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산업 간 융합·전자기기 간 연결 등을 통해 열악한 산업현장을 보다 더 스마트하게 개선하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도해 일출공원은 남도의 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완도타워의 전망대와 천연림 및 꽃 조형물 등 다양한 볼거리와 화려한 야간 경관이 일품이다. <완도군 제공>

완도 '다도해 일출공원' 전라남도 친환경디자인상 최우수상

다도해 일출공원이 '제3회 2018 전라남도 친환경 디자인상 최우수상'을 받았다. 친환경 디자인상은 '전남을 Re Design 하다'를 주제로 친환경성, 활용성, 창의성, 심미성 등을 평가하는 상이다.

올해로 조성 10년을 맞은 완도 랜드마크인 다도해 일출공원은 공원의 활용성과 심미성이 돋보이고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건축물과 모노레일의 조화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도해 일출공원은 남도 최고의 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완도타워의 전망대와 천연림 및 꽃 조형물 등 다양한 볼거리와 화려한 야간 경관이 황홀경이다.

공원 명물로 발돋움하고 있는 모노레일을 타고 푸른 바다와 어우러진 수려한 자연경관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레포츠 시설인 짚라인 체험 등을 할 수 있어 명품공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완도항 부근에 있는 다도해 일출공원은

청산도와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 필수 방문 코스다.

올해 들어 지난 30일 현재 16만6000여 명이 다녀갔다.

완도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완도의 명소인 다도해 일출공원이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머물고 싶은 휴양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암 금정 대봉감 축제' 금정농협서 내일 개막

'행복다(多)감 금정 대봉감, 맛나다!' 영암군이 2일부터 이틀간 금정면 금정농협 대봉감산지유통센터 일원에서 '제16회 영암 금정 대봉감 축제'를 연다.

군은 청정고장 금정면에서 생산되는 대봉감 위상을 높이고자 감을 소재로 다양한 볼거리와 이벤트를 마련했다.

축제 첫날에는 금정 대봉감 시메지인 안노리 모정마을에서 대봉감 풍작을 기원하는 고유제를 시작으로 금정 대봉감의 품질과 우수성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품평회가 열린다.

대봉감을 주제로 한 미니올림픽, 대봉감 요제 등 민선과 출향인, 관광객들이 함께 하는 다양한 행사도 펼쳐진다.

행사장에는 모든 감 종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품종별 감 전시와 대봉감 품평회, 출품작 전시, 대봉감 요리전, 대봉감 천연 염색 옷 전시와 염색체험, 대봉감 꾸기 체험 등 전시·체험행사가 열린다.

대봉감 큰 장터와 대봉감 포토존이 운영된다.

고승철 금정면장은 "금정 대봉감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대봉감 생산농가의 소득 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번 축제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며 즐길 수 있는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풍성히 마련했다"고 말했다.

'호남권 3D프린팅 산업대전' 오늘 익산서 개막

전북테크노파크 호남권 3D프린팅 제조혁신지원센터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 일원에서 '2018 호남권 3D프린팅 산업대전'을 개최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익산지사와 함께하는 이번 산업대전은 호남권 3D프린팅산업 육성과 함께 전북 익산을 4차 산업혁명 주도할 융복합산업의 메카로 성장시키기 위한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행사는 국내외의 3D프린팅관련 기술 및 활용분야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홍보 부스를 비롯해 익산메이커스페이스와 전북제품제작소에서는 관람객이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3D프린팅 체험부스가 마련된다.

강신재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은 "4차 산업혁명과 3D프린팅산업 융합에 대한 인식 확산을 통한 벤처 투자 및 신사업 확장의 기회 제공을 통해 지역발전이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주인라인마라톤대회 3~4일 개최...5천여명 참가 예상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전주인라인마라톤대회가 오는 3~4일 국내외 선수와 동호인 등 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주 시내 일원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첫날(3일) 송천동 인라인롤러경기장에서 열리는 인라인 트랙경기와 둘째 날(4일) 전주종합경기장~전주월드컵구장 구간에서 열리는 마라톤 경기로 나뉘어 진행된다.

메인경기인 마라톤은 42km 오픈부와 21km, 6km 등 7개 부문으로 치러진다.

특히 마라톤에는 프랑스 등 11개국 선수 20여명과 국내 엘리트 선수 200여명이 참가한다.

전주인라인마라톤대회는 2012년 국제인라인컵(WORLD IN-LINE CUP)이 인정된 국제대회로 승격한 이후 해마다 최고의 외국 선수들이 참여하며 권위 있는 대회로 성장했다.

한편 마라톤 대회를 위해 4일 전주종합경기장도 경기도 성모병원, 전주월드컵경기장 구간 도로가 부분 통제된다.

전주인라인마라톤대회 3~4일 개최...5천여명 참가 예상

전주인라인마라톤대회는 2012년 국제인라인컵(WORLD IN-LINE CUP)이 인정된 국제대회로 승격한 이후 해마다 최고의 외국 선수들이 참여하며 권위 있는 대회로 성장했다.

한편 마라톤 대회를 위해 4일 전주종합경기장도 경기도 성모병원, 전주월드컵경기장 구간 도로가 부분 통제된다.

특히 마라톤에는 프랑스 등 11개국 선수 20여명과 국내 엘리트 선수 200여명이 참가한다.

전주인라인마라톤대회는 2012년 국제인라인컵(WORLD IN-LINE CUP)이 인정된 국제대회로 승격한 이후 해마다 최고의 외국 선수들이 참여하며 권위 있는 대회로 성장했다.

한편 마라톤 대회를 위해 4일 전주종합경기장도 경기도 성모병원, 전주월드컵경기장 구간 도로가 부분 통제된다.



한국도서관협회는 지난 24일 강원도 정선에서 열린 제55회 전국 도서관대회 개막식에서 2020년 대회를 군산에서 연다고 공식 발표했다. <군산시 제공>

국내 최대규모 '전국도서관대회' 2020년 군산서 열린다

국내 최대 규모의 도서관 학술행사인 전국도서관대회가 2020년 군산에서 열린다.

군산시에 따르면 한국도서관협회는 지난 24일 강원도 정선에서 개최한 제55회 전국 도서관대회 개막식에서 2020년 대회를 군산에서 연다고 공식 발표했다.

제57회 전국도서관 대회는 2020년 10월 21일부터 사흘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리며, 독서문화 포럼과 세미나, 130개의 도서관 전시회, 도서관 문화진흥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이 자리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인사, 도서관 관련 단체, 해외 주요 도서관 관계자, 문헌정보학 전공자, 전시 관계자 등 4천여명이 참석해 도서관 정보와 미래지향적 독서 정책 및 도서관 문화 발전 방향 등을 공유한다.

한국도서관협회가 주최하고 대통령 소속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가 후원하는 전국도서관 대회는 1962년부터 매년 10월에 열린다.

동태문 군산시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도서관대회를 도내 도서관 문화를 활성화하고 독서의 중요성과 가치를 확산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전국도서관대회는 2020년 10월 21일부터 사흘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리며, 독서문화 포럼과 세미나, 130개의 도서관 전시회, 도서관 문화진흥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이 자리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인사, 도서관 관련 단체, 해외 주요 도서관 관계자, 문헌정보학 전공자, 전시 관계자 등 4천여명이 참석해 도서관 정보와 미래지향적 독서 정책 및 도서관 문화 발전 방향 등을 공유한다.

한국도서관협회가 주최하고 대통령 소속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가 후원하는 전국도서관 대회는 1962년부터 매년 10월에 열린다.

동태문 군산시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도서관대회를 도내 도서관 문화를 활성화하고 독서의 중요성과 가치를 확산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공유지분, 300평(6000만원)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20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

